

보도해명자료 (18.10.2)

수신 : 산업통상자원부 등록기자

제목 : 前산자부 장관의 수상한 측근 인사? (10.2, 헤럴드
경제 등)

※ 문의 :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자원정책과 박재영 과장 (044-203-5120)
박성일 사무관 (044-203-5163)
산업통상자원부 전력산업정책과 최우석 과장 (044-203-5240)
방만희 사무관 (044-203-5247)

1. 기사내용

- ☐ 국가에너지위원회 위원 및 3차 에너지기본계획 워킹그룹에 성일터빈
우타관 대표가 포함된 데에는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의 입김이 작용
했다는 의혹이 제기
- ☐ 가스터빈 관련 320억원 대 신규 정부R&D 과제에 성일터빈이 단독
입찰 후 수의계약 형태로 선정되는 등 특혜 의혹도 존재

try of Trade,
try and Energy

2. 동 보도내용에 대한 산업부의 입장

- ☐ 3차 에너지기본계획 워킹그룹은 전문성·대표성을 고려하여 산업부
에서 위촉하였으며, 우타관 대표가 국가에너지위원회 위원이라는
것은 사실이 아님
- ☐ 가스터빈 관련 과제는 전력기술로드맵(e-TRM, '03년)을 근간으로
'05년부터 지속 추진 중으로,
 - 금년 신규 과제에서 성일터빈은 과제 중 일부를 수행할 뿐이며,
정해진 R&D 절차*를 거쳐 선정되었음

* 1차공모 및 재공모 시에도 단독응모할 경우 평가절차를 거쳐 해당 신청자를
선정하는 방식은 가스터빈 외 분야 대부분 국가R&D 과제에도 동일하게 적용